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3.2월]

- 국제유가, 제한된 범위 내 반등 시도 지속 예상 -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동향

- [원자재지수] 1월 S&P GSCI는 월초 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낙폭을 축소. 에너지 부문이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산업금속 및 귀금속이 강세를 나타내며 반등을 견인
 - 부문별로 에너지 -3.4%, 농산물 +0.8%, 산업금속 +8.7%, 귀금속 +5.8% 등
 - 최근 3개월 간 S&P 에너지는 -12.5%. 반면 산업금속은 +22.4%, 귀금속 +19.1%
- [품목별] WTI -1.7%, 美 천연가스 -40.0%, 유럽천연가스 -20.3%, 亞 휘발유 +4.0%, 옥수수 +0.2%, 소맥 -3.9%, 대두 +1.2%, 구리 +10.2%, 알루미늄 +11.2%, 금 +5.7% 등
 - 美·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이상고온, 충분한 재고 등으로 작년 12월초 이후 급락세. 亞 휘발유는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같은 기간 중 26% 상승

주요 이슈 및 전망

- [원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리오프닝과 맞물려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달러 강세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시도를 이어갈 전망
 - 다만 유가가 반등할수록 차익매물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이며,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는 중국 수요 및 세계 경제지표의 회복에 대한 확인이 필요
 - 한편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
- [곡물] 아르헨티나 가뭄 우려 완화 및 브라질 생산호조 예상 등 하방요인과 글로벌 공급우려 및 달러약세 등 상방요인이 혼재하며 국제곡물 가격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남미 수확철이 다가오는 월 후반에는 농업기상여건에 따른 단기 weather market 가능성 속에서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의 회복 여부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소지
- [비철금속]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과 낮은 재고 등 상승압력이 상존하나 최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투자심리 회복이 뒷받침될 필요
 - 중국경제 5%대 성장 예상, 유럽경제의 개선 기대 등은 비철금속 수요에 긍정적. 다만 기대감만으로는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려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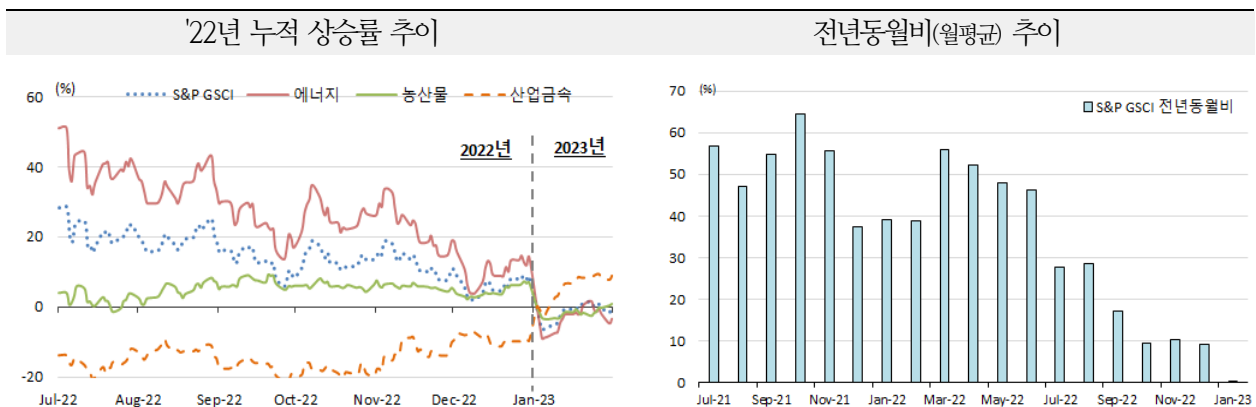
1.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 S&P GSCI 추이

- 1월 S&P GSCI는 월초 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낙폭을 축소. 에너지 부문이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산업용 금속 및 귀금속이 강세를 나타내며 반등을 견인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지수 | 12월말 | 1월말 | 전월비(%) | 연간(%) | 전년동월비(%) |
|-----------|---------|---------|--------|-------|----------|
| S&P GSCI* | 610.07 | 606.06 | -0.7 | -0.7 | -2.8 |
| 에너지 | 288.11 | 278.19 | -3.4 | -3.4 | -5.8 |
| 농산물 | 470.53 | 474.15 | 0.8 | 0.8 | 2.0 |
| 산업금속 | 451.14 | 490.56 | 8.7 | 8.7 | -4.1 |
| 귀금속 | 2396.09 | 2534.50 | 5.8 | 5.8 | 8.1 |
| 축산물 | 357.09 | 362.04 | 1.4 | 1.4 | 6.2 |

* WTI, 美천연가스, 소맥, 옥수수, 원당, 구리, 니켈,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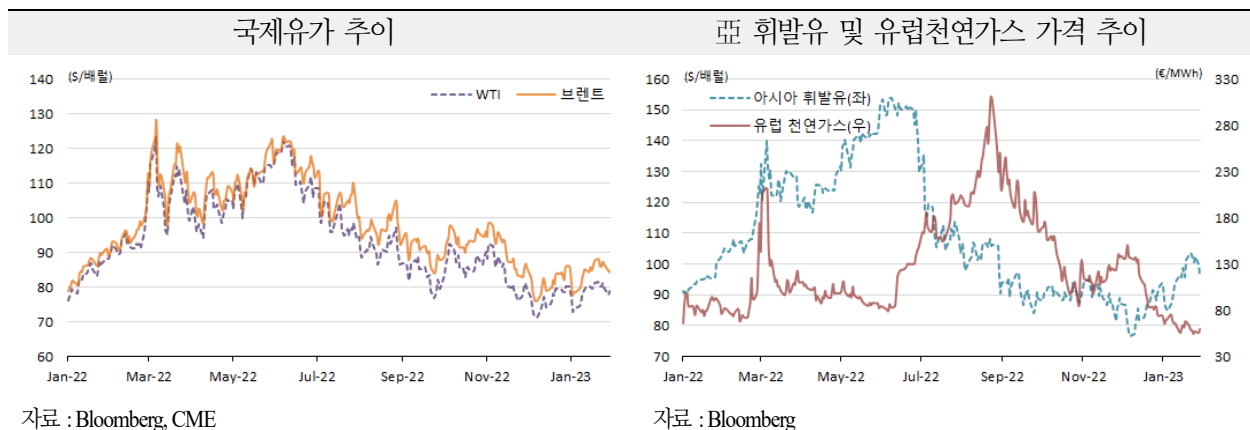
2. 원유

□ [1월 현황] WTI 전월말 대비 -1.7%, 2월 휘발유 +4.0%, 유럽 천연가스 -20.3%

- WTI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월초 \$72(13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中 리오프닝 수요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힘입어 \$78대로 반등하며 낙폭 축소
-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이상고온, 충분한 재고 등으로 작년 12월초 이후 60% 가까이 급락. 반면 2월 휘발유는 中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같은 기간 중 2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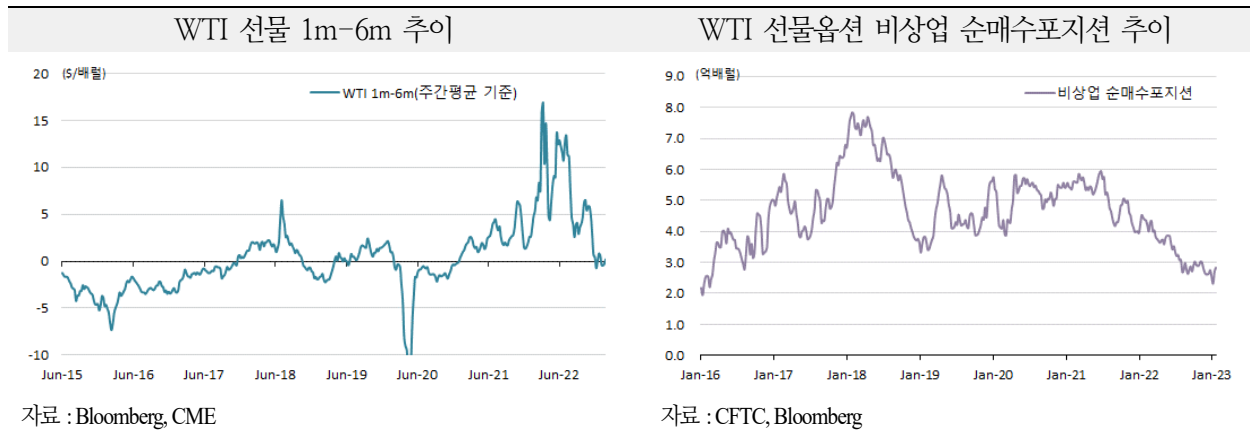
| 품목 | 12월말 | 1월말 | 전월비(%) | 연간(%) | 전년 동월비(%) | 평균가격 | |
|-----------|--------|--------|--------|-------|-----------|--------|-----------|
| | | | | | | '22. | '23.(ytd) |
| WTI(\$) | 80.26 | 78.87 | -1.7 | -1.7 | -10.5 | 94.33 | 78.16 |
| 브렌트(\$) | 85.91 | 84.49 | -1.7 | -1.7 | -7.4 | 99.04 | 83.91 |
| 두바이(\$) | 78.66 | 79.32 | 0.8 | 0.8 | -9.4 | 97.03 | 80.03 |
| 美휘발유(\$) | 103.30 | 106.83 | 3.4 | 3.4 | -0.4 | 124.67 | 104.34 |
| 亞휘발유(\$) | 92.40 | 96.09 | 4.0 | 4.0 | -5.6 | 109.73 | 95.23 |
| 美천연가스(\$) | 4.475 | 2.684 | -40.0 | -40.0 | -44.9 | 6.542 | 3.423 |
| 유럽천연가스(€) | 74.00 | 59.00 | -20.3 | -20.3 | -30.6 | 132.34 | 62.96 |

주 : NYMEX:ICE 선물가격 기준(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 단 두바이유, 亞휘발유(Ron 92 기준)는 현물가격.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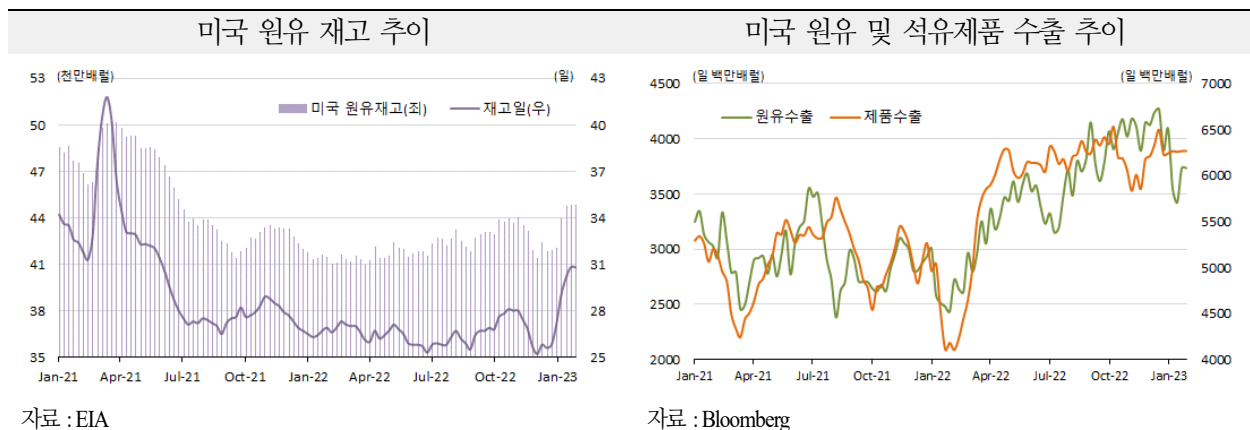


□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

- WTI 선물시장 지표 : 단기물의 경우 콘탱고 전환, 장기물은 약한 백워데이션 상황
 - WTI 1~3개월물은 최근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낮은 콘탱고 상황. 이후 월물들은 약한 백워데이션을 유지 → 단기적으로 공급 우위, 장기적으로 수요 우위 기대 반영
 -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작년 12월 이후 2.3~2.7억배럴 수준(6년래 최저)에서 정체 → 아직까지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실물지표 : 원유 및 휘발유 재고 증가, 원유수출 감소, 수요 부진 등
 - 원유재고는 1.20일 4.49억배럴로 12월 중순 이후 7% 증가하며 7개월래 최고치, 휘발유 재고도 2.33억배럴로 3% 증가. 반면 증류유재고는 같은 기간 중 4% 감소
 - 원유수출은 1.20일 일일 373만배럴로 작년 12월 중순 426만배럴로 역대 최고치 기록 후 다소 축소. 석유제품 수출은 금년 들어서도 일일 625만배럴 내외로 견조
 - 원유수요는 1.20일 일일 1,890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12.7%, 5년 평균(20년 제외) 대비 -5.4%로 부진 지속



- OPEC 및 중국 지표 : 사우디 OSP(對亞 2월인도분) 하향, 中 수입 3개월 연속 증가

|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OPEC생산(일 백만배럴)* | 29.56 | 28.88 | 28.97 | •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 등의 증산 영향 |
| 사우디 생산* | 10.86 | 10.47 | 10.48 | • 11~12월 감산기조 유지 |
| 사우디 OSP(對亞)** | \$5.5(12월인도) | \$3.3(1월인도) | \$1.8(2월인도) | • 中 수요회복 기대감과 배치되는 조치 |
| 중국 원유수입(백만톤)** | 43.14 | 46.74 | 48.07 | • 전년동월 대비 +4%(12월보다 증가세는 둔화) |

주 : OSP(Official Selling Price)는 두바이유/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 자료 : *OPEC, **Bloomberg

□ [이달의 관전포인트] 中 수요, 주요 중앙은행 긴축 완화 조짐, 달러약세, 對러 제재 등

- ‘위드코로나’로 중국 원유수요 정상화 기대감
 - 중국의 작년 원유수요는 개혁개방 본격화 이후 첫 감소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년에는 방역조치 대폭 완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방역조치가 완화된 작년 11월 中 수요는 전월보다 일일 47만배럴 증가했으며, 금년 세계수요는 중국의 회복에 힘입어 1.02억배럴(역대 최고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IEA)
- 캐나다 중앙은행을 필두로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점증
 - 캐나다 중앙은행은 1.25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향후 인상 중단 방침을 시사. 호주 중앙은행도 조만간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美 연준이 2월 FOMC에서 금리인상 중단 시기를 검토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 美 달러화, 높은 변동성 속 약세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 달러인덱스는 작년 9.27일 114.106으로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초강세를 나타냈으나 4분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반전(1.31일 102.097, 9.27일 대비 -10.5%)
 - 최근 환율 여건이 ▲美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 통화긴축 강도 약화 ▲중국 위드코로나 등 강달러 둔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약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각도 증대
-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이어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2.5일)
 - EU는 러시아산 디젤유 등 고부부가치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00, 중유 등 저부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45의 상한제 설정 방안을 논의 중. 작년 12.5일부터 시행 중인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와 함께 글로벌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리오프닝과 맞물려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달러 강세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시도를 이어갈 전망

- 다만 유가가 반등할수록 차익매물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이며, 반등세가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는 중국 수요 및 세계 경제지표의 회복에 대한 확인이 필요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 | 1월(a) ¹⁾ | '23.1Q(f) ²⁾ | 2Q(f) ²⁾ | 3Q(f) ²⁾ | 4Q(f) ²⁾ |
|-----|---------------------|-------------------------|---------------------|---------------------|---------------------|
| WTI | 78.16 | 78.8(-1.7) | 82(+1.4) | 80.1(-0.9) | 82.2(-0.3) |
| 브렌트 | 83.91 | 83.4(-3.3) | 86.5(+0.5) | 83.7(-2.3) | 85.3(-1.5) |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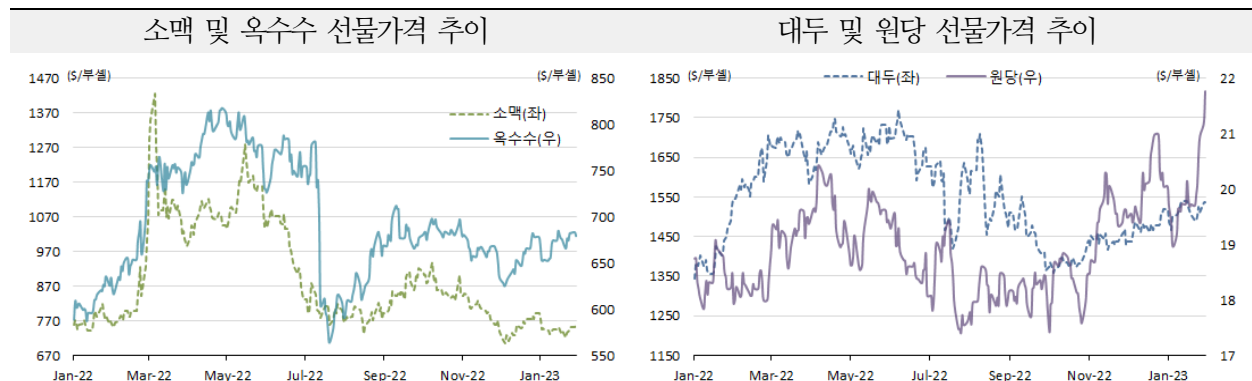
3. 곡물

□ [1월 현황] CBOT 소맥 전월 대비 -3.9%, 옥수수 +0.2%, 대두 +1.2%

- 달러 약세와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 전반적으로 상방압력이 우세했던 가운데 아르헨티나 비 소식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제한
- 소맥은 금년 파종면적 증가 예상 등으로 한 달 만에 하락. 대두는 브라질의 역대급 생산 전망 불구 대두박 강세로 4개월 연속 상승. 옥수수는 에탄올 증산 등으로 강보합

| 품목 | 12월말 | 1월말 | 전월비(%) | 연간(%) | 전년 동월비(%) | 평균가격 | |
|---------------|----------|---------|--------|-------|-----------|---------|-----------|
| | | | | | | '22. | '23.(ytd) |
| 소맥(cents/부셸) | 792.00 | 761.25 | -3.9 | -3.9 | 0.0 | 901.67 | 744.63 |
| 옥수수(cents/부셸) | 678.50 | 679.75 | 0.2 | 0.2 | 8.6 | 693.89 | 670.39 |
| 대두(cents/부셸) | 1,519.25 | 1538.00 | 1.2 | 1.2 | 3.2 | 1550.66 | 1510.15 |
| 쌀(\$/cwt) | 18.05 | 17.83 | -1.2 | -1.2 | 18.4 | 16.51 | 17.90 |
| 원당(cents/파운드) | 20.04 | 21.76 | 8.6 | 8.6 | 19.4 | 18.82 | 19.95 |

주 : CBOT-ICE 선물가격 기준. 부셸은 27.2kg, cwt는 45.4kg.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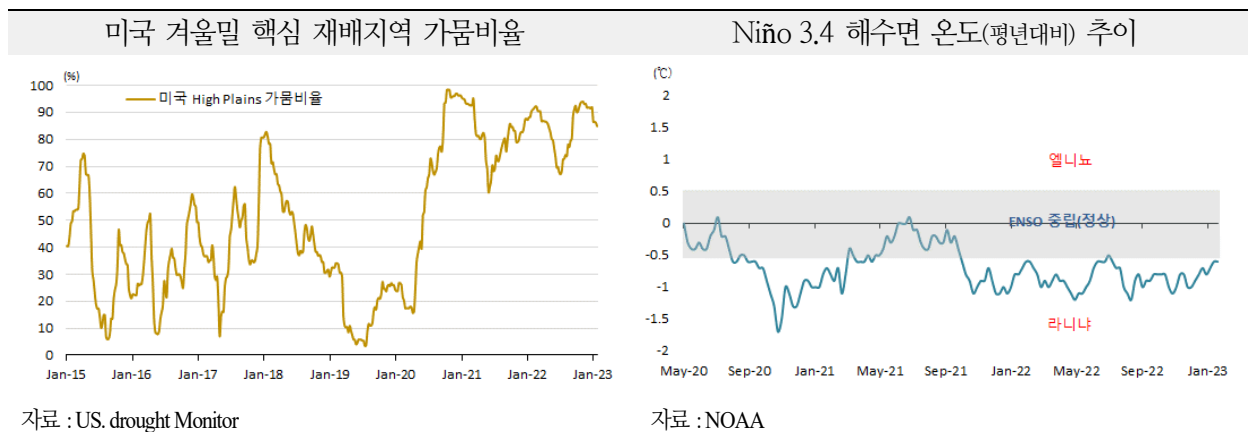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 Bloomberg, CBOT, ICE

□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

- 남미 작황 : 아르헨티나 작황 개선, 브라질 대두는 역대 최대 생산량 예상
 -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우수등급(good ratings) 비율은 1월 셋째주 5% → 1월 넷째주 12%로, 대두는 3% → 7%로 개선.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나 최근 강우로 추가 개선 여지(Buenos Aires Grain Exchange)
 - 주요 예측기관들은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전년보다 1~3백만톤 늘어나며 최소 1.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는 최대 생산지역인 Mato Grosso의 경우 에이커당 생산량이 예상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AgResource)

- 중국 곡물 수입 : 12월 대두 수입은 1,056만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21. 6월 이후 최고치). 타이트한 공급여건과 재고 축적 수요 등에 기인
 - 12월 옥수수 수입은 87만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급감. 다만, 수입선 다변화 추진으로 미국산과 우크라이나산 비중은 감소한 반면 브라질산은 큰 폭 증가
- 농업기상여건 : 아르헨티나 강우 예보로 가뭄 완화 기대. 美 겨울밀 지역도 강우강설
 - 아르헨티나는 1월 중순 주요 곡창지대인 Pampas(아르헨 대두 및 옥수수 생산의 80% 차지)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으며, 2월 말까지 강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
 - 1월 중순 강우로 美 겨울밀 핵심 재배지역의 가뭄비율은 작년말 92%에서 1.24일 85%로 하락. 한편 라니냐 현상은 약화되고 있으며 금년 3월 종료 가능성 82%(NOAA)



- 세계 곡물수급 : '22/'23년 세계 옥수수 생산 및 재고 전망 하향조정, 소맥은 상향

<세계 곡물수급 전망(억톤)>

| | '21/'22 | '22/'23 | | 전년비 | 전월비 | | '21/'22 | '22/'23 | | 전년비 | 전월비 |
|------|---------|---------|-------|--------|--------|------|---------|---------|-------|--------|--------|
| | | 12월 | 1월 | | | | | 12월 | 1월 | | |
| 곡물 | | | | | | 소맥 | | | | | |
| 생산 | 27.95 | 27.37 | 27.31 | -2.3% | -0.25% | 생산 | 7.79 | 7.81 | 7.81 | +0.3% | +0.1% |
| 소비 | 28.03 | 27.70 | 27.63 | -1.4% | -0.3% | 소비 | 7.92 | 7.90 | 7.90 | -0.3% | +0.0% |
| 기말재고 | 7.93 | 7.60 | 7.61 | -4.1% | +0.1% | 기말재고 | 2.77 | 2.67 | 2.68 | -3.0% | +0.4% |
| 재고율 | 28.3% | 27.4% | 27.5% | -0.8%p | +0.1%p | 재고율 | 34.9% | 33.9% | 34.0% | -0.9%p | +0.1%p |
| 옥수수 | | | | | | 대두 | | | | | |
| 생산 | 12.15 | 11.62 | 11.56 | -4.9% | -0.5% | 생산 | 3.58 | 3.91 | 3.88 | +8.4% | -0.8% |
| 소비 | 12.01 | 11.71 | 11.65 | -3.0% | -0.4% | 소비 | 3.63 | 3.81 | 3.79 | +4.5% | -0.4% |
| 기말재고 | 3.06 | 2.98 | 2.96 | -3.1% | -0.7% | 기말재고 | 0.98 | 1.03 | 1.04 | +5.4% | +0.8% |
| 재고율 | 25.5% | 25.5% | 25.4% | -0.1%p | -0.1%p | 재고율 | 27.0% | 27.0% | 27.3% | +0.3%p | +0.3%p |

자료: USDA WASDE('23.1월)

□ [이달의 관전포인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소맥 전망, 인도 소맥 공급난, 에탄올 관련 등

- 러시아 소맥 수출 호조, 우크라이나 파종면적 및 생산 축소 불가피
 - 러시아 소맥 재고가 역대 최고치(12월 기준 2,210만톤, 전년동월은 1,380만톤)인 가운데 1월 수출은 370만톤으로 최근 월평균 270만톤을 큰 폭 상회 예상(Sovecon)
 - 전쟁 장기화로 파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금년 총 곡물 생산은 5,300만톤으로 금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듦 전망(Ukrainian Grain Association)
- 1월 중 인도 소맥가격 급등, 정부는 비축분을 대거 방출
 - 인도 소맥가격은 지난해 37% 급등했으며 금년 들어서도 1월 중순까지 7%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이는 작년 생산부진(-2.5%), 재고감소, 수요 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인도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3백만톤 규모의 소맥 비축분을 방출할 계획. 시장에서는 방출이 늦어질 경우 소맥가격이 5~6%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
 - ※인도는 세계 2위 소맥 소비국인 동시에 순수출국. 작년 5월 이후 수출금지 시행
- 美 에탄올 생산 연초 증가 전환
 - 에탄올 생산은 12.30일 하루 84.4만배럴(22년 최저치)에서 1.20일 101.2만배럴로 증가. 재고도 2.6%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 증가세 지속 소지
- 금융자금 : 소맥은 신규 매도물량 출회, 옥수수과 대두는 저가매수세 유입
 - CBOT 소맥의 금융자금 순매수포지션은 12.27일 -3.7만계약에서 1.24일 -5.4만으로 마이너스 폭 확대(작년 10.11일 이후 마이너스 지속). 반면 옥수수는 21만 → 26만으로, 대두는 13만 → 15만으로 증가

□ [전망] 아르헨티나 가뭄 우려 완화 및 브라질 생산호조 예상 등 하방요인과 글로벌 공급 우려 및 달러약세 등 상방요인이 혼재하며 국제곡물 가격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

- 남미 농업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단기 weather market 가능성 속에서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의 회복 여부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cents/부셸)〉

| | 1월(a) ¹⁾ | '23.1Q(f) ²⁾ | 2Q(f) ²⁾ | 3Q(f) ²⁾ | 4Q(f) ²⁾ |
|-----|---------------------|-------------------------|---------------------|---------------------|---------------------|
| 소맥 | 744.63 | 730(-28) | 730(-) | 733(+13) | 741(+26) |
| 옥수수 | 670.39 | 630(+15) | 644(+18) | 622(+47) | 605(+80) |
| 대두 | 1,510.15 | 1,400(+25) | 1,380(+40) | 1,330(+30) | 1,345(+145) |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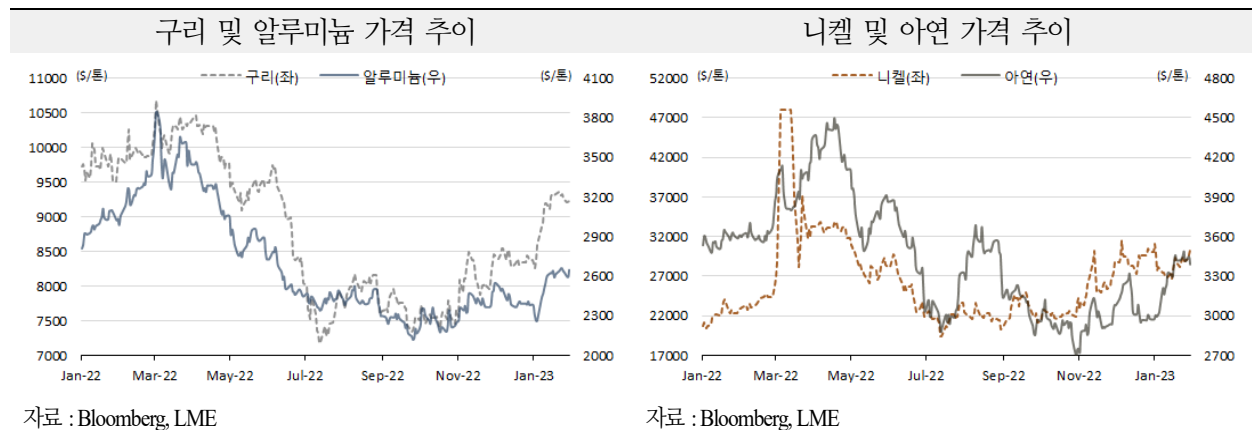
4. 비철금속

□ [1월 현황]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10.2%, 알루미늄 +11.2%, 니켈 +1.0% 등

-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주요 중앙은행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달러약세, 중국 리오프닝 등 강세 요인이 부각되며 비철금속 부분은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 지속
- 구리 가격은 7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며 최근 3개월간 24% 상승. 아연과 알루미늄도 1월 중 14%와 11% 상승했으며, 니켈은 월말 반등하며 1.0% 상승

| 품목 | 12월말 | 1월말 | 전월비(%) | 연간(%) | 전년 동월비(%) | 평균가격 | |
|------------|----------|----------|--------|-------|-----------|----------|-----------|
| | | | | | | '22. | '23.(ytd) |
| 구리(\$/톤) | 8,372 | 9,223 | 10.2 | 10.2 | -3.0 | 8,788.4 | 9,055.3 |
| 알루미늄(\$/톤) | 2,378 | 2,644 | 11.2 | 11.2 | -12.5 | 2,710.9 | 2,533.5 |
| 니켈(\$/톤) | 30,048 | 30,344 | 1.0 | 1.0 | 35.9 | 25,617.5 | 28,395.0 |
| 아연(\$/톤) | 2,972.5 | 3,389.0 | 14.0 | 14.0 | -5.5 | 3,439.6 | 3,289.1 |
| 납(\$/톤) | 2,293 | 2,137 | -6.8 | -6.8 | -4.8 | 2,144.6 | 2,187.6 |
| 금(\$/온스) | 1,824.02 | 1,928.36 | 5.7 | 5.7 | 7.3 | 1,802.5 | 1,902.1 |
| 철광석(\$/톤) | 111.68 | 118.08 | 5.7 | 5.7 | -10.9 | 112.9 | 112.7 |

주 :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 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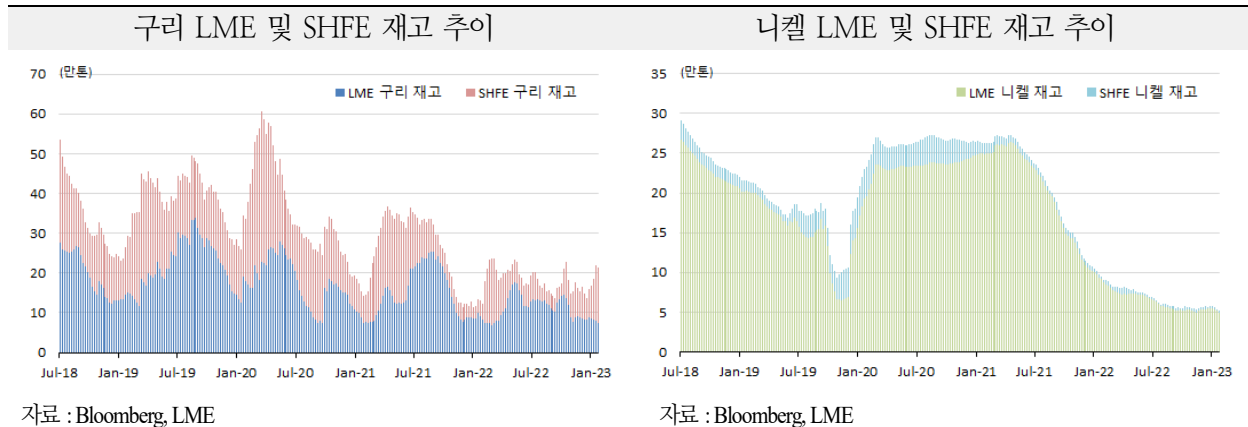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점검

- 중국 경기 : 제조업지수 개선, 산업생산 둔화,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

| | 11월 | 12월 | 1월 | 비고 |
|----------------|--------|--------|------|---------------------------------|
| 차이신 PMI | 49.4 | 49.0 | 49.2 | • 예상치(49.5) 하회. 단, 전월보다 소폭 개선 |
| 산업생산(% yoy) | 2.2% | 1.8% | - | • 예상치(0.2%) 상회. 12월 소매판매는 -1.8% |
| 기준 주택가격(% mom) | -0.44% | -0.41% | - | • 17개월 연속 하락. 12월 주택거래 -37.1% |

자료 : Bloomberg

- 거래소 재고 : LME 재고 감소세 지속, SHFE 재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 1.27일 구리 재고는 한 달 전 대비 LME에서 -1.5만톤, SHFE에서 +7.1만톤. 알루미늄 재고도 LME에서 -3.5만톤, SHFE에서 +13.1만톤
 - 니켈 재고는 LME와 SHFE에서 0.6만톤과 270톤 감소하며 15년래 최저치 기록



- 중국 비철금속 수입 : 12월 구리(cathode) 수입 -13.1%(yoy, 이하동일), 니켈광석은 +44%
 - '22년 연간으로 구리 수입은 367만톤으로 6.7% 증가, 반면 니켈광석의 연간 수입은 하반기 이후 스테인레스 스틸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7.6% 감소

□ [이달의 관전포인트] 칠레 전망, 中 재고 비축 가능성, 금융자금 유입, 현물프리미엄 등

- 칠레(세계 1위 구리 생산국), 금년 구리가격 전망 상향조정
 - 국영 Cochilco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완화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조절 ▲예상보다 양호한 유럽경제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등을 배경으로 금년 구리가격 전망을 파운드당 \$3.7(12월)에서 \$3.85(1월)로 4% 상향
 - 한편 Cochilco는 칠레의 구리 생산은 '29년까지 더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며, 올 해 세계 수급은 16만톤 공급과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금년 중 주요 비철금속에 대한 재고 비축에 나설 가능성
 -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을 감안하면 구리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중국이 재고 비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전략비축국(SRB)은 '21년 11만톤의 구리를 판매한 바 있어 작년부터 이미 재비축을 시작했을 가능성(Reuters). 중국이 본격적인 재고 재비축에 나설 경우 글로벌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우려

- LME 비철금속 선물에 대한 금융자금 유입 증가
 - LME 구리선물의 금융투자자 순매수포지션은 1.27일 3.2만계약으로 작년말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알루미늄과 아연의 순포지션도 63%와 45% 증가
 - 특히 구리의 경우 LME 콜옵션(행사가격 \$20,000, 9월 만기) 계약이 크게 늘어나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비철금속 전반의 현물프리미엄은 아직 낮은 수준 유지
 - LME 구리 현물-3개월물 가격스프레드는 1.30일 -\$21.65, 알루미늄은 -\$36.5, 니켈은 -\$201.7로 콘탱고(현물가격<선물가격) 상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 이는 시장의 강세 분위기와 달리 실물수요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전망] 中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과 낮은 재고 등 상승압력이 상존하나 최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이 뒷받침될 필요
- 세계 비철금속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이 예상되고, 유럽 경제의 개선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은 비철금속 수요에 긍정적 요인
 - 다만 실물지표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대감에 편승한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 되기 어려울 소지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톤)〉

| | 1월(a) ¹⁾ | '23.1Q(f) ²⁾ | 2Q(f) ²⁾ | 3Q(f) ²⁾ | 4Q(f) ²⁾ |
|------|---------------------|-------------------------|---------------------|---------------------|---------------------|
| 구리 | 9,055.3 | 8,375(+575) | 8,400(+600) | 8,500(+229) | 8,500(+95) |
| 알루미늄 | 2,533.5 | 2,319(+19) | 2,425(-25) | 2,511(+50) | 2,538(-) |
| 니켈 | 28,395.0 | 27,500(+2,500) | 25,500(+1,500) | 23,500(+250) | 23,250(-) |
| 아연 | 3,289.1 | 3,100(+100) | 3,050(+50) | 3,007(-) | 3,100(+53) |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혹은 jsch@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